

초상화의 나라 조선, 얼굴 피부병까지 그려내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초상화, 그려진 선비정신

이성낙 지음



서명응 초상.

속중 때의 문신 오명항(1673~1728)의 초상은 유난히 시커멓다. 천연두 흉터뿐 아니라 간질환이 악화돼 나타나는 흑색혈담이 묘사돼 있다. 오명항은 영조의 임금 자리를 위협했던 이인좌의 난을 진압했다. 그 공으로 우의정에 올랐지만 얼마 후 생을 마감한다.

흑색혈담을 비롯한 증상은 “생의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 나타난 임상증상”이다. 그럼에도 그의 초상화에서는 선비정신의 요체인 ‘정직함’이 배어 나온다. 까맣게 변한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리게 한 오명항의 강직함을 읽을 수 있다.

18세기 중엽에 그려진 유복명(1685~1760)의 초상화도 낫빛이 조금 거뭇하지만 양상은 다르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면 얼굴 전체를 뒤덮은 털을 확인할 수 있다. 일명 다모증이다. 그는 희귀 피부질환인 다모증을 앓고 있었는데, 얼굴에 수많은 잔털이 가득하다.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그림을 초상화라 한다. 조선시대는 초상화의 시대였다. 국보로 지정된 초상화만 해도 ‘태조 어진’, ‘윤두서 자화상’, 나아가



여드름 흉터·색소모반·검버섯·

과장없이 작은 흠까지도 사실적 묘사

“조상의 모습 그대로 남겨 효 실천”

보물로 지정된 초상화도 70점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걸작이 그려졌다.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선비들의 얼굴을 진단한 책이 출간됐다. 피부과 의사이자 가천대 명예교장, 국제메체트학회 회장을 지낸 이성낙 박사가 펴낸 ‘초상화, 그려진 선비정신’은 “조선시대 초상화 진료차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피부과 전문의인 연세대 방동식 교수, 아주대 이은소 교수와 함께 519점 초상화를 근거로 진단을 내렸다. 그 가운데 161점은 보존 상태 등 문제로 진단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나머지 초상화 368점 중에서 무려 4분의 3에 해당하는 268점에서 다양한 피부병변을 발견했다.

점(후천성멜라닌세포모반점) 113점, 검버섯(노인성흑색점) 85점, 돌출된 검버섯(지루각화증) 37점 등 현재도 흔히 볼 수 있는 피부병변이다. 천연두 흉터가 73점이나 나타난 것은 당시 천연두가 창궐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엄밀한 진단은 정교한 그림 때문에 가능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보면 당시 화공을 짐작할 수 있다. ‘털 하나, 머리칼 하나라도 다르게 그리면 그건 다른 사람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있는 그대로 그렸을까. 저자는 조상의 모습을 원래대로 남겨 효를 실천하려 했던 유교

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간 선비정신이라는 것이다.

개국군주인 태조의 어진에도 작은 흠집이 드러나 있다. 오른쪽 눈썹 위에 보이는 흑은, 태조가 동의하지 않고는 그릴 수 없었을 거라는 얘기다.

임금뿐 아니라 뛰어난 학자의 초상화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조 때 규장각 초대 재학이었던 서명응(1716~1787) 초상화에는 몽골발염이 드러나 있다. 65세 무렵 그림으로 오른쪽 눈가에 오타모반이, 귀에 털모반이 보인다. 이 외에도 조선 후기 영의정을 지낸 서재수(1731~1818)와 공주 판관을 지낸 서재수(1735~1811)의 얼굴에는 각각 여드름 흉터와 색소모반이 있다.

이처럼 조선의 초상화는 꾸밈이나 과장은 없다. 피사인들의 얼굴은 조금의 흠까지도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선비들의 초상화를 보고 나면 키케로의 “역사는 소멸되는 시간을 증명하는 목격자”라는 말이 실감난다. 또한 저자는 “우리 문화의 탁월함과 독창성을 발견하면서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던 식민교육의 그림자를 벗어나고 그런 면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정직함과 솔직함, 잊어버린, 또는 잊어버릴 뻔한 선비정신이 다시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놀와·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유복명 초상.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쓰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전해정 지음 ‘첫번째 날’

인간다움을 포기한 순간 역설적으로 인간다움의 의미가 드러나는 이야기. 전해정 작가의 장편 ‘첫번째 날’은 금기를 넘어서는 상상력으로 낯선 소재를 과감하게 펼쳐낸다. 2007년 문학동네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작가의 첫 장편으로, 소설은 인간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역점을 둔다.

“알고리즘 판타지에서 정통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향 모두에 있어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는 등단 당시의 심사평이 말해주듯 작가는 소설이라는 영토 어느 한 구역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영역을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딛는다.

소설은 800년의 역사 동안 큰 전쟁도 사건도 없이 평화롭던 네이처 행성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한 청년이 고아인 자신을 돌봐주던 보호자를 살해한 것이다. 사건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가 다름없는 인물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점에서 모두를 분노하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네이처의 신분제 하위에 위치한 5계급 출신이 상위 계급인 정부 관리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도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는다.

때문에 일급범죄를 저지른 그는 가혹한 형벌에 처해진다. 생명체와의 공명과 교류를 최우선시하는 네이처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처벌은 유배형이다. 그렇게 ‘DH(Different Human)-194’라는 이름이 붙여진 채 일급 범죄자 ‘나’는 무인행성 루시아로 쫓겨난다.

〈문학동네·1만3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KIST 문물미래전략대학원 지음 ‘지구전쟁 2045’

2413년 부산에서 아기의 마지막 울음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2505년 서울에서 마지막 시민이 태어나며 2750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된다.

앞의 내용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미래의 일이지만 끔찍하면서도 웅망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구 변화’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 외국 인구의 유입이라는 인구 변화가 가져올 미래는 광범위하다. 이미 재정 압박, 성장 둔화, 세대 간 갈등 등 인구 변화에 따른 심상치 않은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 요인은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KIST 문물미래전략대학원이 펴낸 ‘지구전쟁 2045’는 우리나라의 여러 현안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인구문제라는 사실에 초점을 뒀다. 책은 출산율 최저, 고령 인구 증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유소년 인구 감소 등에 극에 달한 2045년의 모습을 미리 그려본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이 인구 지도를 바꿨는가’와 향후 ‘인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대안과 정책’ 내용이다. 저출산의 저출산은 가치관의 변화, 어른이라는 권위의 해체, 혼자 사는 즐거움을 견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과 맞물려 있다. 한편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주거 지원 확대, 양성평등 실현, 교육 시스템 개혁, 개방적 이미지 정책, 다양한 파트너십의 인정 등을 꼽고 있다.



〈크리에이터·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강양구 외 지음 ‘과학자를 울린 과학책’

과학이 교양이 된 시대,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나갈까? 과학 이외의 문학 작품이나 논픽션, 에세이를 읽을 때 과학자의 시선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까?

‘과학자를 울린 과학책’은 열 명의 과학자 및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한 해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과학과 비교학 분야의 책을 각각 한 권씩 선택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서평집이다. 생물학, 물리학, 생화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 중인 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20권의 책을 통해 과학과 인간을 이야기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수십 년간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해온 뛰어난 과학자들이지만 이들도 과학책을 소설책처럼 술술 읽어내가는 건 아니다.

고용 안정성은 물론 삶의 안정성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저자들은 한 해 동안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통해 과학이란 무엇인지, 과학은 어디까지 세상의 비밀을 밝혀냈는지, 그 사실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질문은 무엇인지, 과학기술이 빚어내는 미래의 풍경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그려내고 있다.

저자들은 ‘휴먼에이지’, ‘섬에 있는 서점’, ‘맥스 테그마크의 유니버스’, ‘미스 함무라비’, ‘인포메이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바깥은 여름’, ‘빅 히스토리’, ‘솔직한 식품’, ‘냉정한 이타주의자’,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파크애비뉴의 영장류’ 등을 추천한다.

〈바들비·1만3800원〉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NAVER 트윈스틸@ 검색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무료견적 H.010-9229-353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광주, 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